

6년째 영북지역 찾아 봉사활동

경희대 치과대 봉사단 4일간 250여명 무료진료

경희대 치대병원 농어촌의료봉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영북농협 3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21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영북농협 3층 봉사단원 20여명이 어린 학생에서부터 70세쯤으로 보이는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5~6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었다. 또 대기실에는 아들 봉사단의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해 10여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올해로 6번째 영북지역을 찾은 경희대 치대병원 농어촌봉사단은 4일간 아침 이른 시각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영북농협 원로조합원과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인근 軍 병사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했다.

경희대 치대병원 농어촌봉사단은 치과교수를 비롯한 의사와 의대생, 간호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은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환자들은 병원으로 유도하고 치석제거와 스텔링 등 간단한 치아문제는 현장에서 시술했다. 또 환자를 진료할 때도 차아상태를 살펴본다. 환자 1명을 진료하는데도 내 가족처럼 30분에서 1시간 가량을 꼼꼼히 체크하고 친절하게 설명한 후 치료에 임한다.

이상용 영북농협장은 "포천과 인연이 있는 우이형 경희대 치대병원장이 6년전 봉사단을 이끌고 온 것이 인연이 되어 매년 여름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비록 지역에 치과 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서 "치과진료를 받기 위한 신청자가 많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내 가족처럼 진료하는 봉사단이 정말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무료치과 봉사에 참여한 봉사단원은 "필요한 곳을 찾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있다"면서 "치료보다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해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이형 경희대 치대 병원장 인터뷰〉

▶포천에서 무료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 안성 출생이지만 부친께서 관인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초등학교를 관인에서 1학년까지 다녔다. 일동군병원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친구인 영북농협 전무가 영북지역에 와서 진료를 해달라고 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경희대 치대 봉사활동 서클이 많다. 경희대 치대 서클이 생긴

것은 40년전인데 그때부터 장애 시설과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 등을 찾아 주말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여름철과 겨울철은 좀더 먼 지역을 찾아가간다. 6년전부터는 포천 영북과 관인을 찾아가고 있다.

▶보람이 있었다면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이 수여하는 아산봉사상을 수상했다. 치과대 학으로서의 처음이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서클이 결성됐다. 소외된 계층이나 의료취약 지역을 찾아 봉사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것 같다.

▶포천지역에 대한 봉사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곳에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같 것이다. 영북과 관인은 의료기관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의료취약 지역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황원현 지부장이 박윤국 포천시 인성학재단 이사장에게 포천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장학기금 전달

교육환경 개선 위해 포천시인재장학재단에 1억원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지부장 황원현)는 지난 24일 포천시청 시청실에서 포천의 우수한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동참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1억원을 재단법인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이사장 박윤국)에 전달했다.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소중한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함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장학재단이 포천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재단법인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은 2006년12월26일 설립되어 지난 2월 26일 제1기 장학생 조·중·고·대학생 및 교사 39명에게 3천37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오늘 기부에 따라 재단법인 포천시인재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이 시민들의 자유타금 2억원과 시 출연금 15억원 등 총 17억원이 조성되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행복은 언제나 내 안에



이보용 본지시주위원

나이다.

행복은 누구나 말을 하듯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내가 마치 깨닫지 못하는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보다는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또한 남들은 행복한 것 같지만 나만 불행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똑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누구나 행복을 바라며 언제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한가

지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좀더 주변 될 것을 내가 좀더 노력하면 될 것을 내가 좀더 기다리면 될 것을 내가 조금 움직이면 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주기보다는 받기를 바라고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며 노력하기 보다는 행운을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한 순간에 얻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늘 행복하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굳이 행복을 찾지 않아도 이미 행복이 자기 속에 있는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부터 만들어 가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중에서 (문의 011-342-5834)



경희대 치대병원 농어촌의료봉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영북농협 3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우경자의 세상읽기 12

어린 시절의 교훈

지금도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당의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다. 학년마다 대표를 미리 뽑고 암송 대회 날 교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신부님이 직접 평가하시는 방식이었다. 나는 밤을 새워 열심히 완벽하게 외웠고 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모두가 놀랄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성경을 외워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때 엄마를 졸라 정치미에 빨간색 블라우스를 사달라고 했던 것 같다. 대 회 날 입고서 뽐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일주일

만 기간이 남아 있었고 난 완벽하게 외웠기 때문에 더 이상 날 따라올 친구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신나게 친구들과 공기놀이하며 놀았고 선생님과의 친구들은 내가 1등을 하리라고 모두 기대했다.

기다리던 암송 대회가 열리던 날, 엄마 아빠 친구들도 모두 참석했고 내 차례가 되어 신부님께서 "몇 장 몇 절을 외워보세요" 라고 하셨을 때 그토록 달달 외웠던 성경 말씀이 하얀 백지장이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내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었는지, 한동안 친구들 앞

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주일학교를 계속 빠졌다. 그 후로 엄마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서 한없이 울었던 슬픈 기억이 있다.

내가 제일이라는 자만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을 삼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았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뛰어난들 내가 잘난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자만심을 알게 해준 내 어린 시절 경험이다. 지금의 나를 조금은 겸손하게 다듬어주는 교훈이었음을 깊이 감사해야 할 것 같다.



김성진

시인의 窓

비

김성진(포천문인협회회원)

그대와의 약속을 더 이상 하지 못할때 더 이상 그대와 사랑을 이야기 하지 못할때 비 비가 그렇게 내리고 있었다

못다 안은 미련에 다시한번 쳐다본 그대의 얼굴은 내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이미 타인이 되어 버려다 그때 창밖에 비 비가 그렇게 내리고 있었다 나는 너를 너무 늦게 사랑했나보다 내가 사랑했던거보다 너는 너를 무척이나 좋아했

〈감상노트〉

그렇다. 대지에 내리는 비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 밭에 쏟아지는 비도 있다. 문을 열면 구름뭉치 사람이 살 속에 가지처럼 박히는 비다. 그 비는 일상의 삶의 흔적을 쓸며 사

나보다 할듯 쳐다본 너의 얼굴에 너무 무거운 너의 잔상.... 못다 쓸어 담은 눈물방울 사이로 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대에게 죄인이요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의 삶속에서 영원한 종신형을 언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종신형을 받고 싶은 날 비 비가 그렇게 서럽게 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

저소득층 아동 40여명 희망의 여행 캠프

(주)한화 저소득층 아동 40여명 청계천 여행 후원

포천시 영북면 지역 저소득층 아동 40여명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희망의 여행 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여름 캠프는 (주)한화가 주관하고 영북면이 후원한 특별한 여행으로 청계천, 63빌딩, 국립박물관, 용인에버랜드 등을 다녀왔다.

이날 참석한 아동들은 항상 저소득층이라는 자괴감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 가며 살아가고 있었으

나 이들 아동들은 주위의 깊은 관심이 있어 매우 기쁘게 새로운 삶을 위한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주)한화 관계자는 "이 작은 행사가 많은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어 매우 기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영북면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복지행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한화가 주관하고 영북면이 후원해 영북면 지역 저소득층 아동 40여명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희망의 여행 캠프를 다녀왔다.

경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4대 임원 취임 축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4대 임원이 선출되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임기가 시작됩니다.

▶단장 박혜자▶상임고문 김명복▶고문 김기호▶고문 임경순▶부단장 김미경▶부단장 김순희▶감사 용경자▶총무 송미령▶부총무 이종혜▶부총무 신철라▶이사 강옥자▶이사 이은미▶이사 노훈심▶이사 김명희▶이사 김진숙▶이사 이효정▶이사 조장희▶이사 권귀자▶이사 이종실▶이사 김옥남▶이사 신형숙▶이사 장선옥▶이사 황은나▶이사 이갑순▶이동면지부장 권경자▶영북면지부장 강기숙▶화현면지부장 김은주▶포천동지부장 박형민▶내촌면지부장 임선화▶가산면지부장 박옥석▶영중면지부장 광복준▶군내면지부장 김진남▶관인면지부장 윤미애▶일동면지부장 정미옥▶소흘읍지부장 이명순▶선단동지부장 조선희▶신북면지부장 이미정▶의정부시지부장 김정선▶연천군지부장 김은희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 윤리강령

제1조 주부명예기자의 신분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는 포천신문사로부터 기사를 제보하거나 기사작성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주부명예기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포천신문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와 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부응하는 기사발행에 앞장서야 한다.

제2조 편집권의 귀속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는 기사가 자기의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따른 보도활동으로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켰으며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도 보장한다. 단 기사의 선택, 편집은 편집국장의 고유의 업무이며 편집국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조 공정보도 실현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언론인의 품위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 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 활동과 관련하여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론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사취재 후 제공 및 제보 등을 지원하는 봉사 와 동시에 기자단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